

# 한화, 로켓탄으로 경영안정 높인다!

## 다연장 로켓탄 생산공장 준공 ... 기술력으로 방위산업 시너지 효과도

한화가 6월4일 오전 대전공장에서 조영길 국방장관, 김종환 합참의장,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7mm 대구경 다연장 로켓탄(MLRS)> 생산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한화는 2002년 7월 국방부와 1차로 1884억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2005년까지 납품키로 했으며, 2000년부터 약 3년 동안의 공사기간을 거쳐 공장을 완공함으로써 총 매출규모는 2013년까지 6000억원, 해마다 600억원 정도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화의 다연장 로켓탄 사업은 1997년부터 국방부가 추진해온 MLRS 2차사업의 하나로 미국으로부터 로켓탄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생산하게 되며 1998년부터 한화가 주계약기업으로 미국 록히드 마틴과 기술도입 협상을 추진해 왔다.

다연장 로켓시스템은 미국이 개발한 세계최고의 성능을 갖춘 지대지 로켓사격 체계로서 최대사거리 45km를 자랑한다. 국군은 1999년 미국으로부터 발사차량과 기본 휴대탄약을 사들여 야전에 배치·운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한화가 전투비축탄을 전량 국내에서 자체 생산하게 됐다.

한화에 따르면, 6발이 1개의 포드 컨테이너에 장입된 로켓탄은 6발 연속 발사 때 목표지점 상공에서 로켓모탄이 수천발의 자탄을 쏟아내 지상에 분산 폭발함으로써 축구장 6-12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할 정도로 화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한다. 걸프전 때 이라크 군이 하늘에서 철비가 내린다고 해서 <스틸 레인(Steel Rain)>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으며, 미국으로부터 직수입하는 사거리 300km급 미사일인 ATACMS와 동일한 발사대를 이용해 발사한다.

다연장 로켓탄은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주변국 경계와 힘의 균형을 유지해 전쟁 억지력을 지닌 핵심무기체계로 계속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화는 다연장 로켓탄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미사일과 정밀 유도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다하고 기존 방위산업 부문에도 접목하는 등 대폭적이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6/05>